제188호(2020. 5. 29.)
KREI 농정포커스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엄진영

요 약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내국인 농업 고용노동력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체감은 농업노동 투입 집중시기인 5~6월과 9~10월에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량은 현재 제도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는 감소하고, 미등록 외국인 공급 규모도 여건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KREI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농업인력 수급이 점차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함. 특히 밭작물과 과일·과채 품목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움 정도는 과일·과채, 밭작물 농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축산농가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인력소개소 및 지인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함.
- 전년 동월 대비 3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 농가가 많았으나, 4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고, 밭작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4월부터 밭작물의 정식·파종·수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지연과 내국인 근로자의 이동 제약에 따른 인력 규모 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일자리 소개·알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 축소 완화를 위한 한시적 정부 정책이 마련됨. 그러나 이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는 낮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셋째, 농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인력 건강 및 지역사회 감염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01

농업노동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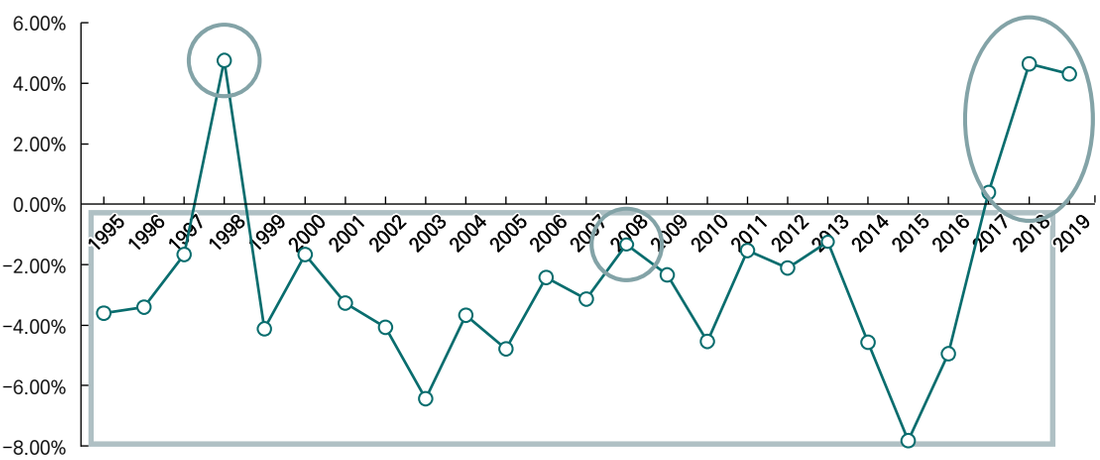
1.1.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추세

1995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

전년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률은 1998년 IMF 금융위기 시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시기와 2017년 이후 급증한 것을 제외하고, 1995~2019년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 여건이 악화된 시기에 완충 역할도 담당함.

- 1998년과 2008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비농업부문 대량 실업으로 농업부문의 인력유입이 발생하여 완충 역할을 하였지만, 일시적 현상이었음. 대부분의 시기에서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최근 2017년 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는 50대 농업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 때문임. 2013~2016년 기간과 2016~2019년 기간을 비교하면, 2016~2019년 기간에 50대 이상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함〈표 1〉.

〈그림 1〉 농림어업 취업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KOSIS. 각 연도.

〈표 1〉 2013~2016년과 2016~2019년 농림어업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전년 대비)

단위: 천 명

구분		고용 있는 자영자	고용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합계
2013~2016	50대	-2.4	-40.5	-37.8	-1.8	0.8	1.2	-80.4
	60대 이상	1.5	-73.0	-33.5	0.2	-1.4	-8.4	-114.6
2016~2019	50대	1.1	1.2	4.5	1.6	-2.3	-7.1	-1.1
	60대 이상	13.7	59.6	44.7	2.1	3.3	-16.5	106.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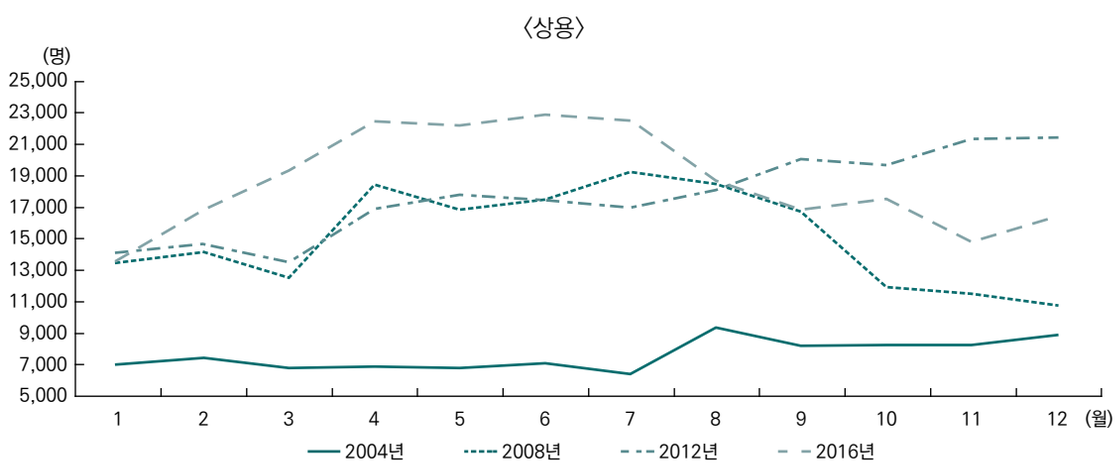
1.2. 농업 고용노동력 변화 추세

농업부문 고용노동력은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증가하고, 일용근로자는 감소하는 특성

농업부문 고용노동력만을 구분해서 변화추세를 보면(2004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비교·분석) 〈그림 2〉와 같이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일용근로자는 감소하였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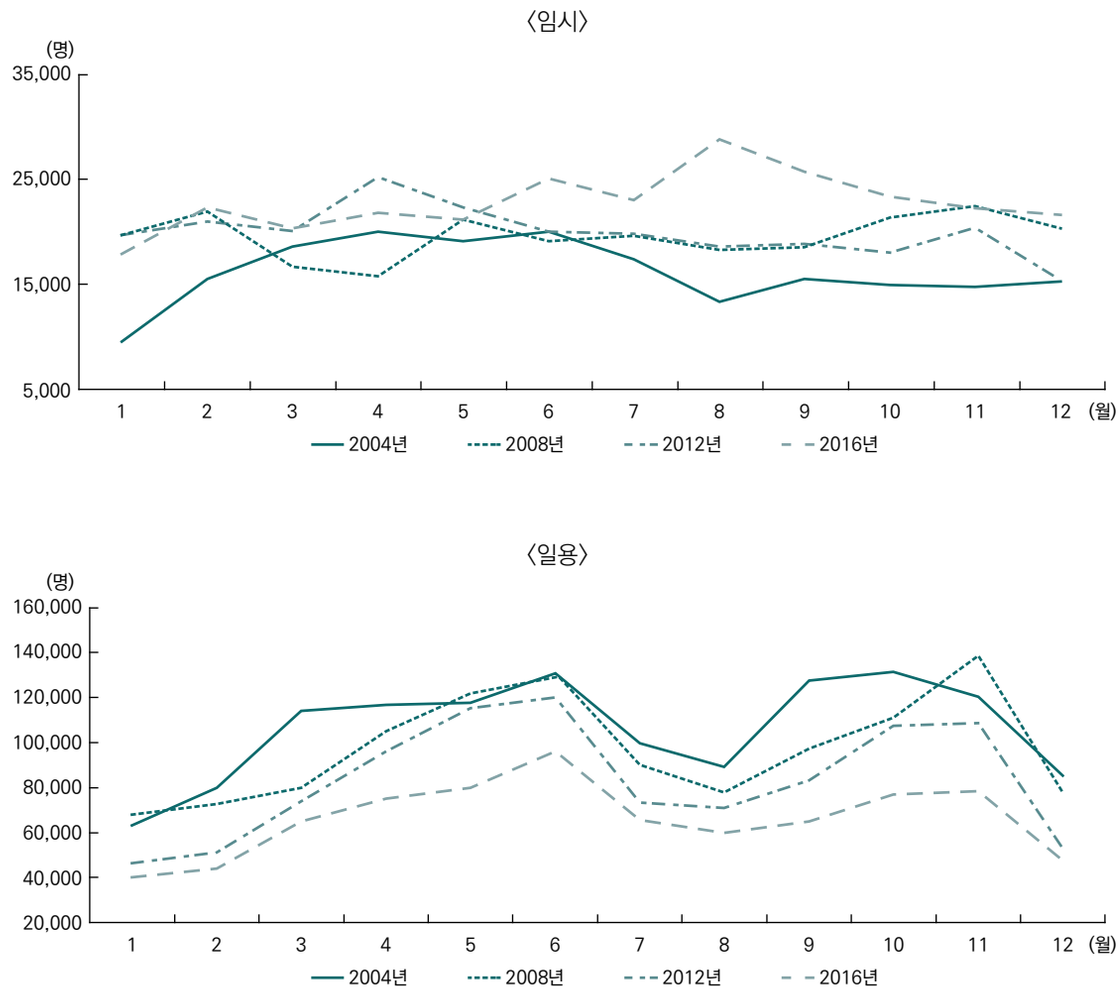
- 전체적인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지만,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현상은 농가의 규모화와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농가 규모화에 따른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 고용이 증가함. 일용근로자 감소는 내국인 일용근로자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으나 외부로부터의 일용근로자 신규 인력 유입 발생이 저조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함.

〈그림 2〉 2004~2016년 종사상 지위별·월별 농업 부문 고용노동력 수



1)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임시근로자는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하 근로자임.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자료: 엄진영 외(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각 연도.

농가의 규모화와 만성적 일손 부족에 따른 노동력 초과수요 현상으로 농업부문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

201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따르면, 논벼 농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근로자는 채소·산나물, 과수, 특용·약용 품목에서 가장 많이 고용됨.

- 2015년에 농업부문의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미 미등록 외국인이 농업부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 작물재배업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수(내국인, 외국인)(2015년)

단위: 명

	임시근로자			상용근로자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비중	내국인	외국인(D)	외국인 비중
채소산나물(노지)	14,759	1,982	11.8	8,014	2,658	24.9
채소산나물(시설)	16,589	2,667	13.9	10,908	6,132	36.0
과수(노지·시설)	26,684	1,672	5.9	6,319	508	7.4
특용약용(시설)	437	138	24.0	1,292	1,148	47.0
특용약용(노지)	7,265	825	10.2	3,766	994	20.9
원예(시설)	776	103	11.7	783	469	37.5
원예(노지)	1,757	81	4.4	1,591	176	10.0
기타작물(노지)	937	133	12.4	450	133	22.8
기타작물(시설)	998	137	12.1	941	345	26.8

주 1) 농업총조사에서 임시근로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상용근로자는 6개월 이상인 자를 의미함.
2) 농업총조사는 일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가 없음.
자료: 엄진영 외(2017);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2015년.

02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2.1. 코로나19와 내국인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내국인 농업 고용노동력이 감소하고, 일손 부족 체감은 농업노동 투입 집중시기인 5~6월과 9~10월에 심화될 전망

내국인 기준, 농업 고용노동력은 5~6월과 9~10월에 집중 투입되므로 내국인들의 경우 지역사회 감염 등의 우려로 해당 시기 고용노동력 투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함.

〈표 3〉 월별 농업 노동 투입 시간(전국)

단위: 천 시간

월	노동력 원천								합계
	가족 노동		고용 노동		품앗이		자원봉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16,074.0	11,185.8	1,516.8	3,177.0	41.8	53.8	234.4	173.5	32,457.2
2	18,947.6	12,927.9	2,027.3	3,616.4	100.8	199.4	568.4	274.2	38,662.1
3	27,519.1	19,637.9	2,663.3	6,302.2	230.8	407.5	1,093.2	491.5	58,345.7
4	35,368.7	27,830.6	2,771.4	6,783.2	907.4	1,063.8	1,895.0	1,095.8	77,716.0
5	45,443.2	35,635.0	3,998.7	10,989.8	827.5	931.6	3,030.1	1,784.3	102,640.1
6	45,083.1	37,093.7	3,110.1	10,904.4	422.5	431.8	2,492.3	1,717.7	101,255.7
7	37,428.9	31,169.5	2,199.2	5,829.8	127.3	254.1	1,469.5	813.5	79,291.8
8	37,788.7	32,829.5	2,105.1	5,419.2	139.6	501.1	1,219.6	1,083.5	81,086.3
9	34,568.7	29,676.6	2,319.5	9,065.0	217.9	529.3	1,530.5	1,317.9	79,225.5
10	35,619.6	32,542.7	3,366.3	9,178.3	506.5	891.4	2,259.7	1,320.0	85,684.6
11	27,084.6	23,391.9	2,608.6	8,055.6	443.8	426.7	1,662.2	1,298.8	64,972.2
12	15,948.9	11,604.0	1,933.2	3,109.5	54.6	184.9	737.3	532.7	34,105.1
합계	376,875.1	305,525.3	30,619.6	82,430.6	4,020.6	5,875.4	18,192.3	11,903.4	835,4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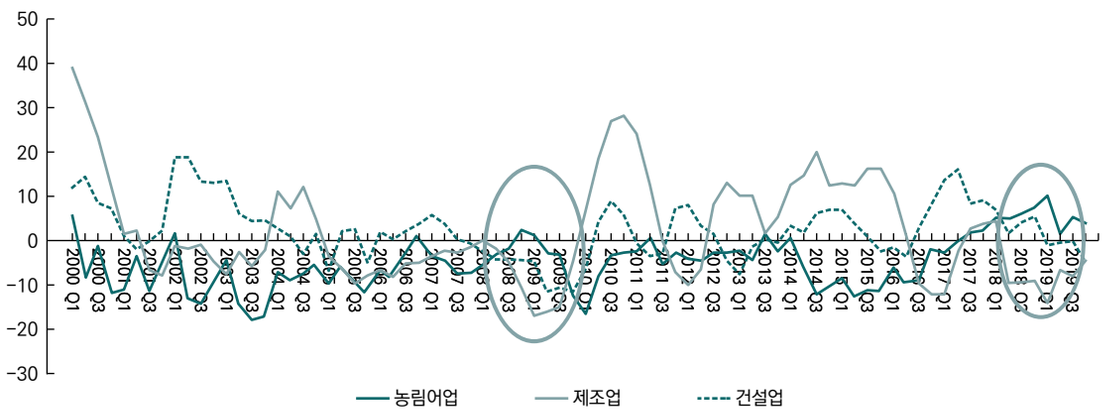
자료: 엄진영 외(2018). 농가경제조사. 2017년.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상황 악화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실업률 증가에 따라 이 부문에서 농업부문으로의 일시적 인력 유입 효과 발생 가능성도 존재함.

- 1998년 IMF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함〈그림 3〉.

- 코로나19가 실물·금융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이런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하므로 당장의 인력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그림 3〉 분기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 비교(전년 동기 대비)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2000년 1/4분기~2019년 4/4분기).

2.2. 코로나19와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공급량은 현재 제도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는 감소하고, 미등록 외국인 공급 규모도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현재 합법적인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의 인력이지만 그 수가 감소함.

- 고용허가제는 매년 도입 규모(Quota)와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기가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상용근로자가 대상인 제도임.
- 계절근로자제도 마찬가지로 도입 규모(Quota)와 입국시기가 정책적으로 결정되지만, 임시근로자(3개월 또는 5개월 고용) 대상 제도임.

〈표 4〉 농업부문 제도별 외국인 근로자 주요 출신국 및 입국시기

고용허가제(2020년 기준)

배정시기	1월(2,650명) 3월(1,590명) 6월(530명) 9월(530명)
주요 출신국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등 중심

계절근로자제(2019년 기준)

배정시기	상반기, 하반기에 배정/지자체 상황별로 상이함.
주요 출신국가	2015년 10월~2019년 누적, 필리핀(1,652명), 베트남(1,063명), 중국인(262명), 몽골인(233명), 캄보디아인(169명) 순서임.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2020년 현재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기가 노동력 투입시기와 일정 부분 맞물려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으로 제도권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한편,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는 제도권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임.

-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은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국외에서 여행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한시적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6년에 추산한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비율은 21.9%(E-9, 2016년)였음.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미등록 외국인 국내체류 규모와 입국제한·지연으로 인한 입국 규모 감소에 따라 달라질 것임. 현재까지 상황으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우선 국내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의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 한시적 운영(2019년 12월 11일~2020년 6월 30일)으로 인한 자진 신고·출국에 따른 국내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공급 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초기를 제외하고는 국내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출국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상황은 발생 초기 출국 후 다시 입국하지 못한 미등록 외국인과, 국외에서 여행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한시적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등록 외국인의 입국제한으로 전체적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2.3. 코로나19 발생 후, 농림어업 고용 동향

전년 동월 대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월까지 모두 증가

- 2019년 동월 대비, 2020년 농림어업 1월 취업자 수는 총 78,840명 증가, 2월 취업자 수는 총 79,520명, 3월 취업자 수는 134,181명, 4월 취업자 수는 72,997명 증가함.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면, 상용근로자는 증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감소,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증가함.

- 내국인 근로자 고용이 급증하는 시기가 5~6월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취업자 수 증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수급 변화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 어려움.
- 다만, 일부 인력 부족 문제를 가족노동력 투입 증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코로나19 발생 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인력 소요가 많은 작물재배업에서의 고용형태가 대부분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임을 감안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번기 고용노동력 부족 현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전년 동월 대비 농림어업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수 감소 폭이 커지고 있어, 농번기의 고용노동력을 구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함.
- 4월의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수가 여전히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농업부문 인력 부족 현상을 일부 가족노동력 투입 증가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표 5〉 2020년 농림어업 전년 동월 대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계
				고용원 O	고용원 X		
1월	7,097	-2,337	-2,879	5,349	48,017	23,594	78,840
2월	6,988	-4,740	-1,639	-1,615	58,521	22,005	79,520
3월	8,350	-4,998	-2,130	4,681	66,649	61,628	134,181
4월	7,258	-7,277	-8,059	-103	47,717	33,462	72,997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2019년. 2020년

2.4. 코로나19 발생 후, 농업인력 애로 실태조사

□ 코로나19 발생 후, 농업 인력 수급 어려움 정도

KREI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발생 후 농업인력 수급이 점차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하고, 특히 밭작물과 과일·과채 품목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전년(2019년) 동월 대비 3월과 4월에 농가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느꼈으나, 작년 동월 대비 어렵다고 느끼는 농가 비율이 점차 증가함. 고용노동력 투입이 집중되는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어려울 것이라고 느끼는 농가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음.

-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3월에 38.6%의 농가(전체 응답농가: 655농가)가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고, 4월에는 42.6%의 농가(전체 응답농가: 665농가)가 어려웠다고 응답하였음.
- 5월 일손 부족 예상에 대해서는 응답농가(709농가)의 59.1% 가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음. 파종·정식기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을 구하는 것이 전년 동월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여김.

〈표 6〉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 4월, 5월)

단위: 명(%)

	3월	4월	5월
전년 동월과 동일함	395(60.3)	374(56.2)	284(40.1)
전년 동월보다 용이함	7(1.1)	8(1.2)	6(0.8)
전년 동월보다 어려움	253(38.6)	283(42.6)	419(59.1)
응답농가 계	655(100)	665(100)	709(100)

주: 5월 응답은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예상을 물어본 결과임.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품목별로 구분하면, 인력 수급 어려움 정도는 밭작물과 과일·과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밭작물과 과일·과채 품목 농가는 4월에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4.6%, 51.0%였으나, 5월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9.0%, 79.1%로 상승함.
- 축산 농가는 인력 수급이 전년 동월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월과 5월 사이에 77.5~78.5%로 나타나, 연중고용에 따른 단기 인력 수급 어려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 4월, 5월)

단위: %, 명

	3월				4월				5월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농가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농가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농가
밭작물	50.0	0.5	49.5	198	44.9	0.5	54.6	207	30.2	0.8	69.0	242
과일·과채	53.6	1.2	45.2	252	47.4	1.6	51.0	253	20.2	0.8	79.1	263
축산	78.5	1.5	20.0	205	78.5	1.5	20.0	205	77.5	1.0	21.6	204

주: 5월 응답은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예상을 물어본 결과임.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품목과 지역별로 구분하면,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강원도에서,[2] 축산 농가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인력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응답 농가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함. 참고로 제주도는 응답한 농가가 1농가이므로, 해석에서는 제외하였음.

〈표 8〉 품목별·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 4월, 5월)

단위: %, 명

		3월				4월				5월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동일	용이	어려움	응답 농가
강원	①	43.2	0.0	56.8	44	41.5	0.0	58.5	53	16.9	0.0	83.1	71
	②	80.0	0.0	20.0	15	73.3	0.0	26.7	15	66.7	6.7	26.7	15
경기	①	54.7	0.0	45.3	53	45.5	0.0	54.5	55	31.0	1.7	67.2	58
	②	78.9	5.3	15.8	38	81.6	5.3	13.2	38	83.8	2.7	13.5	37
충북	①	40.7	3.7	55.6	27	40.7	3.7	55.6	27	21.4	3.6	75.0	28
	②	75.0	0.0	25.0	16	75.0	0.0	25.0	16	75.0	0.0	25.0	16
충남	①	33.3	0.0	66.7	15	13.3	6.7	80.0	15	6.3	0.0	93.8	16
	②	76.9	0.0	23.1	26	76.9	0.0	23.1	26	76.9	0.0	23.1	26
경북	①	47.2	1.9	50.9	108	40.0	0.9	59.1	110	22.8	1.8	75.4	114
	②	71.0	3.2	25.8	31	71.0	3.2	25.8	31	71.0	0.0	29.0	31
경남	①	69.7	1.3	28.9	76	64.4	2.7	32.9	73	32.3	0.0	67.7	93
	②	80.0	0.0	20.0	20	80.0	0.0	20.0	20	85.0	0.0	15.0	20
전북	①	26.3	0.0	73.7	19	26.3	0.0	73.7	19	20.0	0.0	80.0	20
	②	80.0	0.0	20.0	25	80.0	0.0	20.0	25	80.0	0.0	20.0	25
전남	①	56.1	0.0	43.9	107	52.3	0.0	47.7	107	26.9	0.0	73.1	104
	②	87.5	0.0	12.5	24	87.5	0.0	12.5	24	75.0	0.0	25.0	24
제주	①	100	0.0	0.0	1	100	0.0	0.0	1	100	0.0	0.0	1
	②	80.0	0.0	20.0	10	80.0	0.0	20.0	10	80.0	0.0	20.0	10

주: 5월 응답은 전년 동월 대비 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예상을 물어본 결과임.
①: 작물재배업, ②: 축산업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코로나19 발생 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 어려움 정도는 과일·과채, 밭작물 농가에서 크게 시현될 전망

- 코로나 발생 이후 3월과 4월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농가는 밭작물(57.1%)과 과일·과채(68.5%)에서 비율이 높았음. 축산 농가는 작년 3, 4월과 비교할 때, 동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였음.

〈표 9〉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급의 어려움 정도(3월&4월)

단위: %, 명

	동일함	용이함	어려움	응답 농가
밭작물	42.1	0.8	57.1	126
과일·과채	29.6	1.9	68.5	108
축산	76.3	2.2	21.5	93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코로나19 이후 축산농가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인력소개소 및 지인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

축산농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일·과채와 밭작물은 인력소개소와 지인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함.

- 축산 농가는 전년 동월 대비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입국 제한·지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일손 부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 중, 작년 3월, 4월과 비교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농가들 대부분은 인력소개소에서 보내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지인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9.7%, 77.3%에 달함.
- 밭작물과 과일·과채 농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지연 등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보다 기존의 비공식적 고용 경로(인력소개소 이용, 지인 소개)를 통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남.

코로나19 발생 이후 밭작물, 과일·과채 품목에서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이유는 전체 고용 외국인 근로자 대비 계절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 자체가 낮고,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인력소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력소개소에 속하거나 지인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변화에 따라 향후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표 10〉 품목별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하기 어려웠던 외국인 근로자

단위: %, 명

	밭작물	과일과채	축산
고용센터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2.9	3.8	65.0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7.3	5.1	0.0
인력소개소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68.1	53.2	25.0
지역 내 농작업팀에 속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10.1	13.9	0.0
지인(다문화가정 포함) 소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11.6	24.1	10.0
응답 농가	138	79	20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코로나19 발생 후, 근로자 임금 변화

전년 동월 대비 3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 농가가 많았으나, 4월에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노임상승 현상이 발생

전년과 올해 3월 농가가 지급한 임금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과일·과채, 축산 품목에서 전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일·과채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전년 3월과 올해 3월 동일한 농가 비율이 62.9%에서 82.1%로 나타남.
- 축산품목에서는 전년 3월과 올해 3월 임금을 비교할 때, 동일하게 지급한 농가는 67.6%에서 83.6%였음.
- 밭작물의 경우는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농가 비율이 조사한 품목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50.0%에서 83.3%로 나타남. 작년 3월과 비교할 때 올해 3월에 지급한 임금이 상승한 농가 비율이 16.7%에서 48.1%로 나타나, 밭작물에서 인건비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4월에는 인건비가 전년 4월에 비해 상승했다고 응답하는 농가 비율이 밭작물에서 주요하게 증가

이러한 현상은 4월부터 밭작물의 정식·파종·수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밭작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크게 나타남.

- 밭작물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상승한 농가 비율이 높았고,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전년 4월과 동일하게 지급한 농가 비율이 높았음.
-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작업에 필요한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밭작물 농가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보다 인력소개소, 지인 소개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함. 즉, 밭작물에서는 인력소개소와 지인 소개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가 전년 4월에 비해 적어, 임금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음.
- 과일·과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3월과 4월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에서의 어려움이 밭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고용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시기가 밭작물에 비해 다소 늦은 것을 감안하면,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에서의 어려움을 아직 체감하고 있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향후 5월과 9~11월 인력 수급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축산은 연중 고용노동력이 필요한 품목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단기 인력 부족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지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표 11〉 품목별 전년 동월 대비 코로나19 발생 이후(3월, 4월) 근로자 지급 임금 변화

전년 동월 대비 3월

단위: %, 명

	밭작물				과일과채				축산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내국인 남성	0.0	83.3	16.7	12	1.2	82.1	16.7	84	0.8	83.6	15.6	128
외국인남성	10.9	50.0	39.1	46	10.1	69.6	20.3	69	3.9	68.0	28.1	153
내국인 여성	0.0	51.9	48.1	27	3.1	71.9	25.0	96	1.5	67.6	30.9	68
외국인 여성	2.7	54.1	43.2	37	7.1	62.9	30.0	70	4.8	71.0	24.2	62

전년 동월 대비 4월

단위: %, 명

	밭작물				과일과채				축산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감소	동일	증가	응답 농가
내국인 남성	0.0	70.6	29.4	17	1.4	76.4	22.2	72	1.8	78.9	19.3	114
외국인남성	7.3	45.5	47.3	55	9.8	68.3	22.0	82	2.6	65.8	31.6	152
내국인 여성	0.0	54.8	45.2	31	5.7	72.6	21.7	106	1.5	69.1	29.4	68
외국인 여성	2.6	46.2	51.3	39	10.2	65.9	23.9	88	6.2	67.7	26.2	65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03

코로나19에 따른 농업 인력 수급 대응 과제

1.1. 공공 농업고용서비스(일자리 소개·알선) 강화와 지원 확대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지연과 내국인 근로자의 이동 제약에 따른 인력 규모 감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농업부문 일자리 소개·알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코로나19가 현재 국내외로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지연에 따른 농업 고용노동력 규모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전체 농업 고용노동력 규모 감소를 완화하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

- 기존의 공공 농업고용서비스(농산업인력중개센터, 농촌고용중개센터, 지자체별 고용중개센터 등)를 강화하여 해당 농가에 내국인 인력을 알선·소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농번기 때 타 산업 부문으로부터 농업부문으로의 인력 유입 또는 실업상태에서 농업부문으로의 유입이 일정 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인력 수요와 공급 연결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력 알선·소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도시 자영업부문에서 실업 위기에 있는 도시민이 일시적으로 농촌인력으로 고용되는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임금격차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도시민의 농업노동력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농가 측면에서는 비슷한 노임을 지불하여야 하는 불일치성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필요함.

1.2. 농업인력 공급확대를 위한 한시적 정부 정책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 축소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정부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농가가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애로요인이 존재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공급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는 낮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여 보완 방안이 필요함.

- 정부는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 감소를 완화하고자, 3월 30일부터 방문동거(F-1) 비자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90일 또는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농업부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고용허가제(E-9)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는 취업 대기 외국인을 1년 미만 단기 근로 형태로 농축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현장에서 방문동거(F-1) 비자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부문 한시적 취업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3]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부문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대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50일 추가 연장하였으나, 제조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부문 취업을 여전히 꺼려하고 있음.[4]
- 두 제도 중 현실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은 방문동거(F-1) 비자 외국인들의 농업부문 취업 정책에 대해 농가와, 특히 다문화이주민 및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1.3. 농작업 인력 건강관리 체계 마련 필요

농작업 환경은 인력 건강 및 지역사회 감염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

농작업은 농번기철(4~6월, 9~11월)에 일시적·대규모로 인력이 투입되므로, 감염자가 급작스럽게 증가할 수 있음. 그러나 농작업 인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사업장 위생관리 체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농번기철에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고, 일부 작업단에서는 주산지를 따라 광역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감염자 발생 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고 감염자가 급작스럽게 증가될 개연성이 있음.
- 현재 농작업 인력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지역사회 감염 관리 체계와 사업장 위생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 농번기 시기 이전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사회 내의 감염을 최소화하려면 입국 외국인 근로자 및 현재 농업부문에 체류·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건강관리 교육이 필요함.

- 현재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스템인 고용허가제(E-9)에서는 입국 전 건강검진을 하고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재실시하지만, 건강관리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음.
- 계절근로자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해당 지자체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해당농가로 이동' 과정에 입국 후 건강관리 교육이 없음.
-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장에서 건강 관련 교육 실시 방안 검토가 필요함. 또한, 농가의 사업장 위생관리와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더불어 손 세정제 사용과 마스크 필수 착용을 권고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함.

3) 2020년 5월 둘째 주~셋째 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농가 대상 인터뷰 결과임.
4) 2020년 5월 고용센터 관계자와의 인터뷰 결과임. 농업부문에 비해 제조업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에 취업하기로 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대한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함.

부 록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지

설문조사는 총 800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화설문으로 실시함. 설문조사 대상 농가는 봄철(3~5월) 노동력이 필요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함.

- 설문조사 응답 농가의 품목과 지역분포는 〈부표 1〉과 같음. 설문조사 응답 농가 품목은 밭작물 307농가, 과일·과채 263농가, 축산 205농가로, 총 775농가임.

〈부표 1〉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품목과 지역분포

단위: 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밭작물	63	31	10	7	15	61	8	111	1	307
과일·과채	17	33	18	9	104	49	12	21	0	263
축산	15	38	16	26	31	20	25	24	10	205
계	95	102	44	42	150	130	45	156	11	775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세부 품목과 농가 수는 〈부표 2〉와 같음.

〈부표 2〉 설문조사 대상 농가의 세부품목

단위: 명

품목	건고추	단감	돼지	마늘	배	복숭아	봄당근	봄무	봄배추	
농가수	40	30	36	52	41	40	21	33	31	
품목	봄양배추	사과	산란계	수박	양파	육계	젖소	참외	한우	호박
농가수	20	40	19	51	49	33	28	61	89	61

자료: KREI 설문조사 자료.

참고문헌

엄진영·우병준·김윤진. 2017.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박준기·유찬희·김선웅. 2018.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제도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20년

제188호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엄진영)
제187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및 전망(박성진, 박지원, 강두현, 안정욱)
제186호 2020년 10대 농정이슈(이명기 외)

2019년

제185호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이정민, 우성휘, 이명기, 박혜진)
제184호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필요성과 도입 방안(김상효, 이계임, 임소영, 허성윤)
제183호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김종선, 이윤정, 조선미)
제182호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채광석, 김부영)
제181호 2019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국승용, 이형우, 윤종열,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제180호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이형우, 한봉희, 우병준, 박기환)
제179호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유찬희, 서홍석, 김태후)
제178호 양봉산업의 위기와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김창호, 우성휘)
제177호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송성환, 박혜진, 김용렬)
제176호 2019년 10대 농정 이슈(정민국 등)
제175호 농식품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이정민, 김창호, 김용렬)

2018년

제174호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문한필, 조성주, 이수환, 염정완, 김경호)
제173호 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김상현, 임정빈)
제172호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의 영향과 전망(윤종열, 박지원, 신기석, 강두현)
제171호 MERCOSUR 농축산물 생산·교역 동향과 시사점(오새라, 조성주)
제170호 대체 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제169호 2018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정학균, 성재훈, 이현정)
제168호 2018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이형우, 허정회,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박기환)
제167호 농업자원 관리를 위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구축방안(성재훈, 조원주, 이현정)
제166호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김용욱, 성주인, 민경찬)
제165호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문한필, 전형진, 윤종열, 이형우, 박지원, 임채환, 한봉희)
제164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채광석, 이현정, 손학기)
제163호 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제162호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제161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송성환, 박혜진)
제160호 2018년 10대 농정 이슈(김병률, 이명기 등)

2017년

제159호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허장)
제157호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제156호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제155호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제154호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제153호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 출하 및 가격 전망(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제151호 최근 귀농 · 귀촌 실태와 시사점(김정섭, 이정해)
제150호 한 · 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제149호 소 사육 통계의 이력제 자료 대체와 시사점(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제147호 한 · 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제146호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제145호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 등)
제144호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제143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제142호 2017년 10대 농정이슈(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등)
제141호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2016년
제140호 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제13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38호 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황의식 선임연구위원 061-820-2011 eshwang@krei.re.kr
내 용 문 의 엄진영 연구위원 061-820-2255 jeom@krei.re.kr
발간물문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88호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0. 5.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